

2002學年度
碩士學位請求論文

강해설교 연구
-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實踐神學專攻

박 학 군

강해설교 연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指導教授 한 제 호 교수

이 論文을 碩士學位(M.Div.)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日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實踐神學專攻

박 학 균

박학균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安 養 大 學 校 神 學 大 學 院

목 차

I .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6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8
II . 개혁주의 설교연구를 위한 준비	
1. 설교란 무엇인가-----	9
2. 설교의 어원적 고찰-----	10
3. 설교의 중요성-----	12
III . 개혁주의적 설교의 원리	
1. 설교의 기초-----	13
2. 성경해석방법-----	16
iv . 개혁주의적 설교형태로서의 강해설교	
1. 개혁주의와 개혁주의 설교-----	18
A. 개혁주의-----	18
ㄱ. 개혁신학-----	18
ㄴ. 개혁주의 특성-----	21
B. 개혁주의 설교-----	22
2. 개혁주의 설교의 중요성-----	23
3. 강해설교의 정의-----	25
4. 강해설교의 특징-----	27
5. 강해설교의 장, 단점-----	28
v . 강해설교의 적용	

1. 적용을 위한 기본원리-----	31
A. 적용의 의미-----	31
B. 적용의 원리-----	32
2. 적용의 특성-----	34
3. 강해설교 준비과정의 예(例)	
본문:삿 6:1-13절을 중심으로	
a. 설교 준비의 순서-----	36
b. 본문의 문단 나누기-----	37
c. 저자의 의도 파악-----	37
d. 본문에 대한 구상-----	39
e. 본문의 구조 파악-----	40
f. 본문의 주해-----	41
g. 핵심적인 논리의 구성-----	44
h. 서문의 작성-----	45
4. 강해설교의 예(例)-----	45
vi. 결론-----	50
vii. 참고 문헌-----	52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한국교회의 설교 현주소를 묻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까닭은 강단의 설교가 성경에서 떠나 있으며 목회자들이 비성경적이며 비신학적인 설교 아닌 설교를 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개혁주의 노선이며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반틸은 그가 추구한 개혁주의 신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는데 반추해볼 만한 내용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그리스도에서 출발하며, ...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과 계시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인간의 모든 자율사상을 부정하며,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으로부터 시작한다.”¹⁾

한국 개신교 전도활동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 설교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이 급박함에 따라 교회의 설교에도 세속화가 몰려들고 있고 그 공격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현대 고도의 산업사회는 근본적으로 세속화라는 역사과정 속에서 교회는 전통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의 근거를 상실하기에 이르렀고, 동시에 교회는 긍정적 면에서도 전통적인 목회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즉 목회 현장의 구조, 기능, 대상이 복잡해지고, 다원화함에 따라 설교자와 청중의 요청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전통적인 설교의 가치에

1) E. P. Clowney, *Preaching the Word of the Lord: Cornelius Van Til, V.D.M* 한제호역; 한제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상」, (서울: 진리의 것밭, 1999), p. 421. 재인용.

대한 의혹이 널리 퍼져 설교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오늘의 설교의 위기²⁾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인이 살피기에도 한국교회의 설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의 강단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목회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세속화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강단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여기에서 강단이 비어있다고 할 때 이것은 목사가 없는 교회 강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가 강단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설교가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을 주며 청중은 설교에서 전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각한 곤경에 부딪히고 있음을 말한다.

매주 마다 수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사회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보다 성경적으로 변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머물거나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질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단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설교들이 과연 성경적이며,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위기에 김성봉박사는 21세기 개혁교회의 설교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를 주장하였는데 첫째는 개혁교회의 신앙전통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 둘째 그동안 발굴해 놓은 바람직한 성경해석법을 총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 문자만을 해석하지 말고 문자를 넘어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³⁾이라고 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의 기독교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설교이다. 교회사상 설교의 부흥은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가져왔고 따라서 참된 설교는 교회의 부흥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

2) Clyde Reid, *The Empty Pulpit*, 설교의 위기, 정장복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3) 김성봉,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 (한국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 설립 5주년 기념 특강), 1997. p. 5.

로 성경적인 설교,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설교에 대하여 강해설교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는 데 본 연구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에 의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였으며, 특별히 연구범위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회현장에서의 예배시 행하여지는 강해설교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먼저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개혁주의 설교연구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설교의 정의, 설교의 어원적 고찰 및 설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루었고, 3장에서는 개혁주의적 설교의 원리로 예배에 있어서의 설교의 기초, 성경 해석방법 등에 대하여 논하고, 본론에 해당하는 4장에서는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설교, 개혁주의 설교의 중요성, 강해주의설교의 정의, 강해설교의 특징, 그리고 강해설교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였으며, 5장에서는 강해설교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적용을 위한 기본원리로 적용의 의미, 적용의 원리와 적용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강해설교 준비 과정의 예를 7단계에 걸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피고 제시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창세기 18:22-33을 본문으로 하여 실제 강해설교 한편을 작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결론을 맺을 것이며 그 뒤를 이어 참고문헌을 나열할 것이다.

II. 개혁주의 설교연구를 위한 준비

1. 설교란 무엇인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The servant of the Word)이며,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 일 것이다.⁴⁾

설교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인 것이다.⁵⁾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1:21)에서 이 말을 쓸 때는 선포의 내용으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선포인 설교를 꼭 안련 박사는 헤릭 존슨(Herrick Johnson)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있는 종교적 감화이다”라고 했으며⁶⁾ 강해설교에 탁월하였던 로이드 존슨 목사는 “설교는 설교자와 듣는 자 사이의 하나의 거래입니다. 설교는 인간 영혼과 전인격, 전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설교는 듣는 사람의 문제를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루어 주는 것입니다.”⁷⁾ 라고 했다. 또한 루돌프 보렌은 설교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 성서의 말씀을 고백으로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거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설교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부터 연관되어져야하며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4)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서울: 홍성사, 2001), pp. 24-25.

5) 이주영, 「현대 설교학」(서울: 성광문화사, 1983), p. 22.

6) 콕안련, 「설교학」(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1), p. 16.

7) D. M. Lloyd-Jones, 「목사와 설교」, 서문강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p. 68.

아닐 수 없는 것이다.⁸⁾ 인간이 인간의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즉 성경말씀 자체만을 설교해야하는 것이다. 성경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심오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증거 하므로 듣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화를 끼쳐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는 에반스(William Evans)가 정의 한 바와 같이 그것은 “인간에 대한 구원의 복음에의 선포”인 것이다.⁹⁾ 따라서 참된 설교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2. 설교의 어원적 고찰

1) 케뤼그마(κ η ρ υ γ μ α)

헬라어 케뤼그마(κ η ρ υ γ μ α)는 대개 ‘선포’, ‘설교’, ‘선언’으로 번역되며 신약성경 바깥에서는 대체로 국가 관리가 국가의 방침을 포고하는 공적인 행위를 가르키되 포고 행위에 의해 포고의 내용이 효력을 갖는다는 뜻으로 쓰였다.¹¹⁾ 이 용어는 우리말 성경에 ‘전도’ 혹은 ‘전파’로 번역되어 있으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나 전파 이상의 뜻을 갖고 있다. 케뤼그마(κ η ρ υ γ μ α)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말한다.¹²⁾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를 케뤼그마라 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케뤼그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의 신학의 핵심이다.¹³⁾ 이러한 케뤼그마의 내용은 사도들이 전파하던 메시지의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8) 이주영, op.cit., p. 23.

9) Ibid., p. 23

10) Ibid., p. 23

11) 「신학사전」(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1), p. 1013.

12) 고전1:21,2:4 ; 마12:42 ; 롬16:25.

13)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서울: 홍성사, 2001), p. 66.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계시의 중심으로 하여(요5:39) 또 십자가를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는 것¹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은 모든 성경의 요지이며 진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그러한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과 따라서 죄인들의 회개와 십자가의 사죄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 그것이다. 오늘날의 설교에도 초대 교회의 신자들의 이러한 내용을 함축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설교는 반드시 케리그마적 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설교의 어원을 고찰함에 있어 케리그마적 요소와 함께 또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설명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디다케(διδασκαλία)’ 적 요소이다.

2) 디다케(διδασκαλία)

디다케(διδασκαλία)는 우리말로 ‘교훈’ ‘교육’ ‘가르침’ 이라는 뜻으로 막4:2; 12:38; 마16:2; 요7:16,17에 나타난다. 언제나 설교의 내용에는 깨우치고(Awaking), 가르치고(Teaching), 교훈(Instructing)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설교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저들을 자라게 하고 완전케 하는 교훈이 있어야 한다.¹⁶⁾ 구약 시대의 설교에 있어서도 율례와 법도의 교훈적 설교¹⁷⁾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세례요한의 교훈적 설교¹⁸⁾, 예수님의 산상보훈(마5:1-7), 해변의 설교(마13장), 다락방의 강화¹⁹⁾ 등등의 교훈적 설교가 있었으며, 사도들의 설교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는 교훈적 설교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들의

14) 이순환, 「신약 원어 연구 해설」(서울: 청암사, 1980), p. 279.

15) 이주영, op.cit., p. 26.

16) Ibid., p. 26.

17) 신6:1.

18) 눅3:7-14.

19) 요13:3-16.

믿음을 키워주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성장시켜 천국 건설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반드시 디다케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케리그마적 성격과 디다케적 성격은 함께 설교 안에 공존해야만이 온전한 설교로서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의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목회적 설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케리그마적 배경으로 하는 디다케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설교에서의 디다케 면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에 대한 감사와 의무를 가르치며 윤리적인 순종과 사랑을 권면하여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어야 하며 저들의 인격을 완성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²⁰⁾ 즉 설교는 ‘케리그마’와 ‘디다케’를 모두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케리그마가 하나님의 구원계시의 자체라면 디다케는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교훈이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설교의 중요성

설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꼭 안련 박사는 그의 저서 「설교학」에서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설교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道)를 전하여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생의 길로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귀한 특권을 천사에게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완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를 보면 설교자들이 침묵을 지키게 된 후에는 천사들이 이 특권을 취하리라고 되어있다. 지금은 우리에게만 맡겨진 특권이 만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천부(天賦)의 특권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²¹⁾

20) 이주영, op.cit., pp. 26-27.

「강해설교의 기초」의 저자 김 서택 목사도 설교자는 오직 설교로 말하게 되어있으며 설교자에게 있어 가장 복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이다²²⁾ 라고 결론지어 말하면서 설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III. 개혁주의적 설교의 원리

1. 설교의 기초

정성구 박사는 “성경 없이는 설교 없고, ... 기독교 설교의 중심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출발하기에, 설교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다.”²³⁾라고 말하였다. 설교와 성경은 절대적 관계이며 설교근원은 오로지 성경으로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개혁주의적 설교를 위한 기초는 “성경으로만(Scriptura Sola)"이란 말과 "성경 전부로(Scriptura Tota)"라는 어구에 의해 잘 묘사된다. 기독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함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선포해야한다.

한제호 교수도 반틸의 사상을 인용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에 기초한 설교의 바탕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설교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 중심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설교는 응용된 내용이 풍성할 것이다.²⁴⁾

21) 곽안련, 「설교학」(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0), p. 28.

22)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서울: 홍성사, 2001), p. 293.

23)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pp. 198-199.

24) 한제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상」, (서울: 진리의 깃발, 1999), p. 425.

1) 성경만 설교해야 한다.²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목회방법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한 것이다.²⁶⁾ 그러나 현대의 설교자들은 그의 설교자료의 근원을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나는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초자연적 영감과 성경적 계시의 특이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²⁷⁾ 그들은 또한 기독교 설교자들이 말씀만을 가지고 설교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해야 하며,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을 해석하는데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²⁸⁾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성경 말씀들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큰 소리를 내어 읽어 보기도 하고, 다른 번역판과 대조해 보기도 하고, 원전을 참조해 보기도 해야 한다. 하여튼 항상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한다.²⁹⁾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그 말씀만을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해야 한다는 원칙이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성도들의 시대적 환경과 요구 등 환경적 요인(Context)의 적용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원리(Text)는 영원히 변함없지만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Context)에 대하여는 적절히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효율적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25) Ibid., p. 426.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from God)온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about God) 책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행하여진 주의 행사들을 우리에게 말한다.

26) R. B. Kuyper, 「*To be or Not To be Reformed*」 (Zondervan Publishing house), p. 152..

27) 정성구, 「설교학 개론」 (서울: 세종 문화사, 1983), p. 463.

28) Ibid., 463-464.

29) 윌리엄 스쿼드랙, 「예배에 있어서의 설교」, 차호원 역 (서울: 소망사, 1985), p. 75.

관하여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감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주신 해결책만을 제시해야하고³⁰⁾ 목사의 경험이나 종교의식을 설교의 주제로 삼는 것은 Scriptura Sola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³¹⁾ 설교의 기초는 성경이므로 설교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떠나 다른 자료들에 기초하여 성경을 단지 자기의 주장을 지지하고 설교자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인용문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들에도 설교는 존재하지만 그 기초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비롯된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설교는 단지 교훈적이거나 인간의 마음을 잠시 동안 감동시킬 정도의 연설에 지나지 않는 연설문에 불과한 것이다.

2) 성경 전부를 설교해야 한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하나님의 유일 무이한 말씀으로 선포해야한다고 말한다. 성경전부를 설교해야한다는 설교 원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은 신, 구약이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설교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초해서 선포해야 하며, 구약과 신약을 항상 동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그대로 역사적인 것으로서 선포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는 복음의 차안성과 피안성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³²⁾ 설교는 설교자가 좋아하는 일부 특정 부분만을 설교해

30) 정성구, 「설교학 개론」, op.cit., p. 467.

31) Ibid., 471.

32) 한제호교수는 그의 저서 「성경의 해석과 설교 상」 중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중요성”이란 글을 통하여 개혁주의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22절은 제자들이 가룟유다 대신 맛디아를 제비로 선택하기 전에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 하는 일”로 규정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두 경우에서 모두 사도적 교회의 증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시작된

서는 안 되며³³⁾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 한다.

2. 성경해석 방법

독일 최대의 성경신학자였던 A.슐라터(Schlatter)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성경의 참된 이해에 이르는 성경 연구 방법의 기초를 제시함과 동시에 성경의 역사적, 총합적(總合的)이해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였다.³⁴⁾

J.머레이(Murray)는 성경해석자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성경의 해석 이전에 성경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정당성을 승인할 것 둘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저술이라는 동시성(同時性)의 성립 근거는 그리스도의 신인성(神人性)에 기초했음을 인식할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증거의 진실성과 성경의 신빙성(信憑性)은 직결되었음을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³⁵⁾ 성경이 설교를 위한 가치를 지니고 설교자의 본문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고도 바르게 해석되어야하며 설교자는 본문으로 선택한 일정한 성경구절에 대해 명확히 함축된 의미를 알고 거기에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그 본문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야한다.³⁶⁾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개혁주의 설교가 존 브로더스(J. A.

사도행전과 기타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기독교의 설교의 내용과 대상과 목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33) 존. 스타트, 「설교자 상」, 문창수 역, (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7), p. 25.

34) 한제호, 「A. 슐라터의 성경해석법이 설교에 주는 영향」, 슐라터 신학대회(2002.10.14-16)에서 발제한 소논문, p. 1.

35) J. Murray, 「*The Infallible Word*」, op. cit., pp. 41-42. 한제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상」, (서울:진리의 깃발,1999), p.161. 게재. 그밖에 J. G. 메이첸의 성경해석방법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의 저자와 동일한 정신 상태에 들어갈 때만 바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36) 정성구, 「설교학 개론」, op.cit., p. 64.

Broadus)의 성경해석 방법³⁷⁾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본문을 자세히 연구하여 문법적 수사적인 양면을 주의 깊게 조사한다.

①본문에 사용된 단어들과 구절의 분명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본문에 나타나는 언어 표현법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는 반드시 분명하게 표현되며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2)본문을 인접관계에서 연구하라. 그러면 본문의 문맥은 물론 그 의미에 빛을 줄 것이며 또한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하다. 인접문맥은 보통 전후 문장의 몇 절에서 몇 장까지 포함한다. 또한 문맥이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장과 시작하고 끝난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배제해야만 한다.

3)더 넓은 관계에서 본문을 연구하라. 본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다른 해석을 위하여 중요한 사실이다. 그것들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통 포함하고 있다.

①때때로 논리적 관계는 그 본문의 의미하는 전체적인 사상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한 권 한 권은 나름대로 독특한 내용과 연관지어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②본문이 속해있는 성경 문맥을 떠나서 일반 역사적 지식이 종종 도움을 줄 때도 있다.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화들 속에서 글 본문을 분명하게 하는 지리적 사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 역사에 나타나는 주변 국가들의 풍습과 생활양식을 언제나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③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연관해서 그 본문을 연구하라. 이러한 가르침들은 조화되고 전체가 균형 되도록 결합되어 있다. 만일 어떤 구절이 두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훨씬 가깝게 조화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계시는 점진적이기 때문에 구약의 가르침은 반

37) Ibid., pp. 65-67.

드시 신약에 비추어 보아서 해석되어야 하고, 증명된 본문들의 사용은 매우 조심성 있게 해야만 한다. 어떤 본문은 결말이나 성경의 부분도 전체적인 계시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본문 연구에 있어서 성경 관주의 면밀한 검토는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단어들과 구절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 해석하는데 문법적 부분의 도움을 줄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관주는 그 본문이 언급된 상이한 환경과 특정한 상태에서 나타난 같은 주제를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방법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자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기자의 생각과 현대인들의 사이에서 있는 거리를 최대한 축소하자는 것이다.³⁸⁾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은 동일한 바램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바램이 현실적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의 문헌과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첩경이 될 것이다.

IV. 개혁주의적 설교형태로서의 강해설교

1. 개혁주의와 개혁주의 설교

A. 개혁주의

ㄱ. 개혁신학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서방의 카톨릭 교회에서 분립하게 된 개신교 내에서의 신학 전통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혁주의의 사상체계는 개혁신학에 기초한다. 개혁신학의 시작은 16세기

38)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토틀는 설교를 ‘두시대의 다리놓기’로 설명한바있다.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서울: 홍성사, 2001), p. 257. 인용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개혁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다른 명명으로 협의(狹義)의 의미로는 루터파 신학과 대비되는 신학으로서 쾰링글리(Zwingli)와 칼빈(Calvin), 불링거(Bullinger), 부셔(Bucer)등 스위스를 중심으로 활동한 종교개혁가들로부터 시작된 신학을 의미한다.³⁹⁾

개혁신학의 근본원리들은 쾰링글리의 사상속에 표현되어있으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의 심오하고 예리한 해석을 통해 비로써 최종적인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조직적인 형식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은 종종 칼빈주의라는 말로도 사용되며,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온 가장 근간을 이루는 신학의 주류이다. 개혁신학은 성경의 교훈을 조직적으로 해석한 하나의 포괄적인 성격적 사상체계이다. 이러한 사상체계는 16세기 칼빈에 의해 시작되고 전수된 사상체계는 아니다. 단지 칼빈은 이 사상 체계를 종합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알기 쉽게 해석한 것뿐이다. 이는 칼빈 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사상이며, 성경전체의 사상이라고 볼수 있고 하나님 중심이 개혁주의 신학의 지배적인 주제이다.⁴⁰⁾

개혁신학의 태동기에 나온 최초의 연구서들 중에는 루터의 소논문과 쾰링글리의 『참종교와 거짓종교에 관하여』(On True and False Religion, 1525), 불링거의 『기독교 요점을 포함한 50설교』(Fifty Godly and Learned Sermons, Divided into Five Decades Containing the Chief and Principal Points of Christian Religion, 1549), 칼빈의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1559)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이다.⁴¹⁾

루터와 쾰링글리, 불링거, 칼빈 등 설교자적 신학자들이 모두 타계한 후 개혁신학은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면서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39) 정성욱,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서울: 진리의 말씀사, 1994), p. 150.

40) 「신학사전」(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1), p. 38.

41) 존 레이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서울: 생명의 샘, 1992), p. 47.

주도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개혁신학은 루터파 신학과 로마 카톨릭 신학과는 구별되는 신학체계를 독립적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16세기 말과 17세기에 걸쳐서 활약했던 제2세대의 신학자들 중에는 칼빈의 후계자로 제네바 대학의 학장을 역임하면서 신학을 교수한 데오드르 베자(Teodore Beza, 1519~1605)와 전택설(前擇說)의 철저한 신봉자 고마루스(Franciscus Gomarus, 1563~1641),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 투레틴(Francis Turretin, 1632~1687) 등이 포함된다.⁴²⁾

제2세대의 개혁신학자들은 알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의 자유의지론과 아미라우트(Moise Amyraut, 1596~1664)의 가설적 만민구원설, 그리고 아담의 원죄 전가설을 반대한 라플라스(Joshua de Laplace, 1606~1665)등의 신학적 공격에 대하여 개혁신학을 정립해 나갔다.

1618년 토르트 회의에서는 알미니안파의 비성경적 구원론을 정죄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채택하였다. 제2세대 개혁신학이 집대성된 작품은 1646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신학의 제 1원리로 삼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³⁾

17세기 말기 이후 유럽의 개혁신학 연구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철학의 공격을 받아 주춤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개혁신학계에 가장 큰 공헌자는 신생국 미국의 청교도 전통을 계승한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3~1758)였다.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등 개혁신학에 크게 기여했으나, 당대의 뉴턴(Issac Newton, 1642~1727)과 로크(John Loke, 1632~1704)의 철학적 영향하에서 신학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후 미국 개혁신학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⁴⁴⁾

18세기 계몽사상과 19세기 낭만주의 사조는 신학계를 크게 이등분시키는

42) John T. McNeil, 「*The History & Character of Calvinism*」 (NY: Oxford Univ. Press, 1957), pp. 237-290.

43) 주도홍, 「개혁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pp. 178-179.

44) John T. McNeil, 「*The History & Character of Calvinism*」 (NY: Oxford Univ. Press, 1957), p. 361.

역할을 했다. 한쪽은 자유주의이고, 또 다른 진영은 보수주의적 개혁신학이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극단화되었고 보수주의는 지적 생동력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극단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19세기에도 전통적 개혁신학을 계승, 발전시킨 탁월한 신학자들이 그 맥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그중 『개혁주의 교의학』을 저술한 독일의 헤페(H. Heppe), 미국의 핫지(C. Hodge), 워필드(B. B. Warfield), 화란의 카이퍼(A. Kuyper), 바빙크(H. Bavinck) 등이 있었다.

20세기의 개혁신학은 카이퍼의 전통을 계승하는 화란 자유대학파와 핫지, 워필드의 전통을 계승하는 웨스트민스터 학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카이퍼와 바빙크 사후 화란 자유대학은 벌카워(G. C. Berkouwer), 볼렌호벤(Vollenhoven), 도에베이르트(Dooyeweerd) 등의 개혁신학자와 기독교 철학자를 배출했고,⁴⁵⁾ 워필드 사후 미국은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친 메이첸(G. Machan), 반틸(C. Van Til), 머레이(J. Murray) 등을 배출했다.

ㄴ. 개혁주의의 특성⁴⁶⁾

개혁주의 신학의 지배적인 주제는 하나님 중심이며 좀더 직접적으로는 중보자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필연적인 요구에서 이 주제가 전개되었다.⁴⁷⁾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루터의 개인적인 몸부림으로 인하여 칭의에 훨씬 치중하는 구원론을 집중 연구한 루터교와 구별하여 개혁교회는 모든 실재를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신론의 중요성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45) 정성욱,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서울: 진리의 말씀사, 1994), p.153. 화란 자유대학의 조직신학은 벌카워교수 이후 바르트신학의 영향으로 좌경화되었다.

46) 「신학사전」(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1), p. 38.

47) 한제호교수는 “개혁주의 설교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원리에 입각한 본문 강해 설교이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이다.”라고 역설하였다.(한제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상권, p. 68.)

1. 인간의 자기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서만 이루어진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고한 권위와 초월적인 거룩을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다.

2.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도르트 신조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자가 될 만큼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힘차게 주장하였다.

3. 개인과 공동의 삶 모두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일관되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체 삶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그리스도중심⁴⁸⁾: "칼빈(Calvin)과 녹스(Knox)와 잔키우스(Zanchius, 1516-90)에 의해 예시된 초기 개혁주의 신학에서 일관된 초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근거요, 선택의 주체와 객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학의 직접적인 초점의 중심인 그리스도에게 명백히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71년에 발표된 반틸의 논문 『Credo』에서 그는 성경의 자증하는 그리스도(The self-attesting Christ of Scripture)에서 그의 변증학을 시작했던 것처럼 신학에서도 개혁주의에서 출발한 이유는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의 그리스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⁴⁹⁾

B. 개혁주의 설교

종교개혁이 비 복음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기에 그 종교개혁의 정신인 개혁주의는 분명 성경중심의 신학노

48) 「신학사전」(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1), p. 40.

49) 한재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상」(서울: 진리의 깃발, 1999), p. 421. 재인용

선이다. 성경중심은 구속사이므로 개혁주의 설교는 곧 구속사적 설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⁰⁾ 구속사(Redemptive history)는 신학역사에서 파생되어진 역사적 산물의 단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려고 하시며 또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모든 역사적 사실들의 총체이다.⁵¹⁾ 구속사는 신앙에 입각한 성경적 역사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자유 비평 주의적 역사관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사는 초역사적 사건이나 신화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⁵²⁾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별개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 들어와서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구속사는 극단적인 역사의 이원화를 배격하는 것이다. 또한 구속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구속사적 설교는 성경의 자기 계시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성경 고유의 경륜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파악되고 이해되어지는 설교이다. 성경을 단순한 모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사적인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를 찾으려는 설교가 진정으로 구속사적인 설교이며 개혁주의 설교인 것이다.⁵³⁾

2. 개혁주의 설교의 중요성

정성구박사는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며, 교회가 참 교회되는 증거다... 설교가 참으로 성경대로 바르게 능력 있게 증거 될 때에는 교회가 교회되는 제자리를 찾았지만 설교가 의식의 그늘에 가리워지고 비성경적 설교가 강단을 지배했을 때는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가 부패함으로 세상의 빛

50)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p. 348.

51) 박종철, 「구속사적 성경해석」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8), pp. 101-2.

52) 간하배, 「현대신학해석」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4), p. 58.

53) C. 탐프. 드프릭, 「설교학 강의」, 고서희, 신득일, 한만수 공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6), p. 46.

과 소금의 구실을 감당 못하고 교회구실을 못했던 것이다.”⁵⁴⁾ 라고 하였으며 로이드 존스목사도 “말씀 증거하는 것이 교회와 목사의 최우선적 임무”⁵⁵⁾라고 하였다. 이상의 두 주장만을 가지고도 설교의 위치와 중요성은 확연히 드러나며 설교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건축과 성장제일주의로 팽배해진 오늘날의 교회문화에 있어서 다음의 내용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교회성장의 개념으로 수적인 증가에만 강조를 두게 되면 항상 손쉽게 많이 모이도록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된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설교사역의 위치는 다른 무엇과 교체되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보편화된 현상이다. 알스톤은 때로 현대 교회 내에서 설교가 무시되는데 그것은 보다 특수한 예배의 형태도입, 성례에 대한 우선적 강조, 사회적 활동을 더 좋아함, 설교의 일을 연극공연 안에 바꾸어 나타냄 등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한 현상이기도 하다. 간증이 설교를 대신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찬양이 설교의 설 자리를 밀어낸 듯하다. 개혁교회의 전통엔 설교가 모든 다른 것 위에 있는 은혜의 수단이다. 칼빈이 설교에 대하여 아주 높이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설교가 무엇보다도 뛰어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으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제네바시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면서 삼천 번 이상 설교했다.(Leith 1977,80) 개혁자들의 이런 정신은 종교개혁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설교에 대한 가장 큰 부흥들 중에 하나였다. 이런 배경위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설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는 설교와 그것의 복음적 내용위에 있는 강조는 개

54)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p. 13.

55) D. M. Lloyd-Jones, 「목사와 설교」, 서문강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p. 33.

개혁교회가 설교를 교회성장의 수단이요 그것을 위한 과제로 이해하였음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개혁교회가 교회성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설교의 회복과 다른 무엇이 그것의 위치를 침해할 수 없도록 강단사역에 독보적 위치를 세우는데 있다.” 56)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인 설교를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설교가 신학의 마지막 언어라고 할 때 개혁주의 설교는 개혁주의 교의학과 개혁주의적 성경신학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

3. 강해설교의 정의

최근 한국교계에서 설교에 관하여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강해설교다. 이처럼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인 강해설교를 바르고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최근 강해설교에 대한 설교학자들에 의견을 살펴본 후 나름대로의 강해설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한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모든 설교는 강해설교이어야 한다.” 57) 라고 말했다. 모든 목사는 성경을 통하여 설교해야 하며 모든 설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듣는 성도들에게 쉽게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총신대학에서 설교학을 강의한 정성구박사도 “성경적 설교로서의 최상의 방법이 강해설교라고 생각 한다” 58)라고 말했다.

「건축술로서의 강해설교」라는 저서를 쓰면서 강해설교에 대하여 본격적

56) 고려신학대학원 교회문제 연구소,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총회출판국, 1996), p. 22.

57)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서울: 홍성사, 2001), p. 29. 인용

58)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p. 347.

인 해석과 연구를 준비한 김서택 목사는 강해설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추어 오늘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설교” 59)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20여년간 설교학 교수를 지냈고 「성경적 설교」를 저술한 미국의 대표적 강해설교 이론가인 로빈슨의 강해설교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강해설교란,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으로 연구하여 발견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경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청중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 60)

침례교 목사로서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저작 활동을 하였던 마이어(F.B. Mayer, 1847-1929)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강해설교란, 그(성경) 속의 비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정신이 설교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까지 설교자가 머리와 마음과 두뇌와 근육을 총동원하여 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울고 그리고 기도한 성경중의 어느 한 책이나 또는 보다 확장된 부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는 방법” 61)

이상으로 위에서 강해설교에 대한 여러 학자와 목회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다소 그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강해설교

59)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서울: 홍성사, 2001), p. 15.

60)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p. 273. 로빈슨의 경우에는 강해설교란 말을 성경적 설교라고 혼용해서 쓰기도 했다.

61) Ibid., pp. 272-273.

는 설교의 원형이며 가장 성경적인 설교⁶²⁾는 강해설교라는데 한가지로 일맥상통함이 있다고 본다.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내적인 통일성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원래 말씀이 선포되었던 상황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강해설교라고 할 수 있다.⁶³⁾

4. 강해설교의 특징

강해설교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설교 재료가 성경본문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 설교재료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배치하는 작업이다.⁶⁴⁾ 그리고 로빈슨이 말한 강해설교에 대한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⁶⁵⁾

첫째, 강해설교란 성경 본문이 설교를 좌우하는 것이다. 즉, 성경기록자의 사상이 강해설교의 내용을 결정한다. 강해설교는 단순한 방법론이기 전에 바로 철학의 문제라는 것이다. 강해설교자는 마치 이야기를 듣는 어린 아이와 같이 천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념을 전달한다. 즉 강해설교는 성경에 나타난 단어나 구절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성경 기자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하려고 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강해설교에 있어서 개념은 본문에서 나온다.

62) 필자는 많은 강해설교 학자들의 의견을 나름대로는 동의하나 가장 본인의 의견과 일치하는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강해설교를 성경적 설교의 관점으로 해석한 로빈슨과 강해적 설교방법론을 주장한 로이드 존슨의 경우가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성구박사의 의견도 본인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이 있다.

63)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서울: 홍성사, 2001), p. 20.

64) Ibid., p.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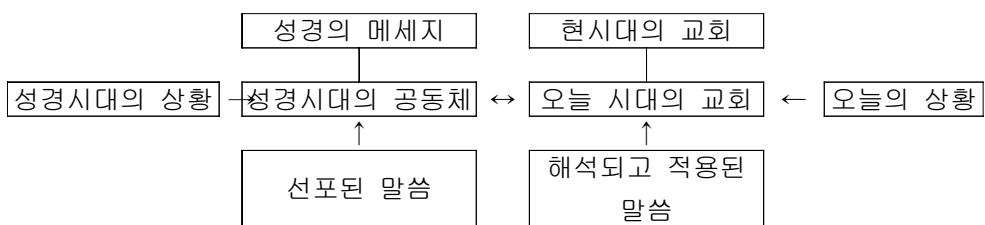
65)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pp. 273-274.

강해설교의 내용으로서 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단어나 문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강해설교의 사상을 성경본문의 배경에 관련해서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으로 연구해서 발굴하고 알아낸 것이어야 한다.

넷째, 강해설교에 있어서 개념은 강해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진리는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생명력을 가진다. 필립 부룩스(Pillips Brooks)의 말과 같이 “설교란 진리가 인격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Preaching is truth poured through personality)” 이어야 한다.

다섯째, 강해설교에 있어서 개념은 듣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그의 진리를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실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청중에게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강해설교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의 문제는 적용(application)의 문제이다. 만약 적용이 없다면 성경의 글자 풀이에 끝나고 무미건조한 설교가 되기 쉽다.

다음의 표1)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강해설교는 두 시대의 공동체, 즉 성경시대의 공동체에게 선포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 교회에게 바르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1>66)

66)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 (서울: 홍성사, 2001), p. 21.

5. 강해설교의 장, 단점

강해설교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장두만 박사는 강해설교의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1)강해설교는 설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 2)강해설교는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하게 한다. 3)강해설교를 하면 설교의 자료가 무궁무진하다. 4)강해설교를 하면 다루기 힘든 문제를 원만하게 다룰 수 있다. 5)강해설교는 설교자와 교인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게 한다. 6)강해설교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⁶⁷⁾

영거(M. Unger)는 강해설교의 장점에 대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설교자에게 권위와 능력을 제공해 준다. 둘째, 설교자에게 무한정한 설교 자료를 제공해 준다. 셋째, 인간적인 필요를 해결해 준다. 넷째, 교육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배출한다는 것이다.⁶⁸⁾

또한 깁스(A. P. Gibbs)는 세 가지로 강해설교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강해설교는 성경에 관한 전체적인 넓은 지식을 갖도록 한다. 둘째, 강해설교는 말씀사역에 다양성을 갖게 한다. 셋째, 강해설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을 다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⁶⁹⁾

그밖에도 강해설교는 지역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⁷⁰⁾ 강해설교는 어느 계층의 청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⁷¹⁾ 그리고 목회자로 하여금 설교

67) 김성봉,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 (한국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 설립 5주년 기념 특강), 1997. p. 38. 각주 인용. 아울러 강해설교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열거 하였다. 1)강해설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큰 부담이 있다. 2)강해설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중들에게 권태감을 줄 수 있다.

68) M. 영거, 「강해설교의 기술」 편집부 역, (서울: 보이서사, 1991), pp. 31-40.

69) A. P. Gibbs, 「설교자와 그의 설교」, 조정훈 역, (서울: 전도출판사, 1988), p. 238.

70) 이병돈, "강해설교에 있어서의 상황에 대한 텍스트의 적용" 월간 목회(1989.8), p. 265.

71) Ibid., 264. 그러나 반면에 성인들의 경우에는 강해설교보다는 오히려 예화설교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성인들 중에서 지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은 강

본문 선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으로 10가지 강해설교의 장점들을 살펴보았는데 물론 이러한 장점 외에도 무수히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설교 형태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⁷²⁾

아무리 장점이 많은 강해설교라 하더라도 강해설교가 갖는 단점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곽안련박사는 강해설교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지적했다.⁷³⁾

먼저 강해설교는 단조로움의 위험성이 있다. 강해설교 방식이 잘못되면 성경주석에 지나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⁷⁴⁾

둘째로 강해설교는 선택할 만한 재료가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게을러지기 쉽다. 그래서 정작 강해설교에서 분석하고 조직하고 단일한 중심사상을 발견하는 일에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다.⁷⁵⁾

셋째로 강해설교를 하는 중에 흔히 긴 성경구절을 택하게 되므로 청중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조직적인 사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⁷⁶⁾

마지막으로 설교의 중심 주제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다.⁷⁷⁾

위의 네 가지 단점을 극복하는 길은 목회자 스스로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설교를 들어야 할 여러 대상에 대하여 다각적인 적용과 다양한 독서를 통한 자료의 수집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자칫 단조로운 설교패턴으로 인해 식상해진 설교에 부가적인 설교 예화의 개발도 고려해볼 만하다. ‘설교와 관련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72)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pp. 292-293.

73) Ibid., p. 292. 재인용.

74) Ibid., p. 292.

75) Ibid., p. 292.

76) Ibid., p. 292.

77) Ibid., p. 293. 강해설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유연성이 없는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중심적인 주제와 무관한 자료의 나열이 되기 쉽다. 따라서 설교를 통해 제시할 중심 주제를 중도에 놓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라면 부산까지라도 다녀와야 한다’ 고 역설하였던 박윤선 박사의 주장은 참으로 의미 있는 교훈이다.

V. 강해설교의 적용

1. 적용을 위한 기본 원리

A. 적용의 의미

설교는 특정한 말씀(본문)을 구체적인 청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설교란 본문에 대한 해석과 청중을 향한 전달이다. 그러나 본문(Text)은 고대에 주어졌고, 청중은 ‘지금 그리고 여기’의 상황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그밖에 모든 상황을 가능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고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스필전은 “적용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설교는 시작된다.” 라고 말함으로써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미국의 한 설교자는 “특정한 적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이 계속 될 것이다.” 78)라고 말함으로써 적용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였다.

제이 E. 아담스는 “적용(Application)은 설교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성경구절을 활용한다(to improve the text)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만 그것이 신자들에게 유용한 것이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79) 고 말하고 있다.

78) 데니스 레인, 「데니스 레인 강해설교(개정판)」, 김영련 역, (서울: 두란노, 1995), p. 57.

79) 제이 E. 아담스, “어원으로 살펴본 ‘적용’의 의미” 그 말씀 54호(1997년 1월

장두만은 적용에 대하여 “적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가 메시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답변이다.” 80)

제임스 브레카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적용이란 각 개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진리의 초점을 각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맞추는 수사적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정창균은 적용에 대하여 “본문과 청중 사이에 구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81)라고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의를 내렸다.

위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적용이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융화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B. 적용의 원리

1. 적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에 항상 본문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한다. 적용은 여럿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본문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안 된다. 흔히들 해석은 하나이나 적용은 여럿이라고 한다. 최소한 그 원리상으로 볼 때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하나여야 하나,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적용은 여럿일 수가 있다. 적용을 받는 대상의 인격적 환경적 요인들이 너무나 상이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적용은 아무런 구속력을 받지 않고 설교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79) 제이 E. 아담스, “어원으로 살펴본 ‘적용’의 의미” 그 말씀 54호(1997년 1월호), p. 232.

80) 장두만,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1986), p. 109.

81) 정창균, “적용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라,” 그 말씀 120호 (1996년 6월호), p. 21.

2.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삶과 직접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진술한 내용과 청중의 요망사항, 이 양자간의 관계는 안개가 끼어 있지 않은 투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듣는 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행위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용은 그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적용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려주고 있는지 분명한 그림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은 청중들로 하여금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4. 적용은 청중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설교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중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설교라고 말할 수 없다. 설교의 목적은 청중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청중들을 변화시키려면 청중에 대해 정확하고도 예리한 적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의 목적을 잘 성취시키려면 적용이 적절해야 되고 적용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필요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다. 청중의 필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을 때 설교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도 없는 문제를 열심히 논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설교자는 청중이 가려워하는 부분은 다 피해 버리고 가렵지 않은 부분만 열심히 긁어주는 결과가 되고 만다. 필요에 둔 강한 설교자는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없다.⁸²⁾

5.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본문에 나와야 한다.

해석하는 과정 중에 연구하고 있는 말씀에서 눈에 띄는 진리들을 만나게

82) 장두만, *op. cit.*, p. 112.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진리들이 보일 때마다 설교자는 메모를 해 두어야 한다. 설교를 위해 모든 자료와 내용들은 보관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스윈돌은 마태복음 6:25-34의 영려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서 다섯가지 원리를 찾아냈다.

영려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
영려는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게 만든다.
영려는 전혀 무익하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영려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혀지게 한다.
영려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아니라, 이교도의 특징이다.⁸³⁾

위의 내용처럼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어 현대인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 적용의 특성

첫째, 성경적이고 성공적인 적용은 성경본문의 교훈과 일치해야 된다.⁸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본래의 메시지는 명확한 메시지 단 하나밖에 없다. 칼빈이 강조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성경의 메시지의 명료성 때문에 위대한 것이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적용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적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적용은 성경본문의 분

83) 제임스 브래가, 「설교준비」,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p. 301-302.

84) 장두만, *op. cit.*, p. 110.

명한 정신과 메시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성경적이고 성공적인 적용은 청중 전체를 위한 것이면서도 개인적이어야 한다. 설교자가 적용을 할 때 어떤 특정 개인만을 염두에 둘 수는 없다. 전체를 향해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내 설교를 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목자의 심정이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향해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이 메시지의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상관이 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어떤 한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⁸⁵⁾

세 번째, 성경적이고 성공적인 적용은 현대적인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석이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적용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식으로 현재형으로 표현된다. 그러면서 그 적용을 보다 빛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보다 그 적용을 확실히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예화를 사용할 때도 가능하면 동시대의 예화이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동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설교자는 많은 독서와 당시의 베스트셀러를 읽음으로서 현대적 감각을 유지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번째, 성경적이고 성공적인 적용은 역동적이어야 한다.

주석의 진리는 변함없고 주해와 신학은 정확하기만 하면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야 하지만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⁸⁶⁾

또한 설교자는 할 수 있는 한에서 작은 회중들을 가지려고 하고, 할 수

85) 이동원, “강단 설교와 삶의 적용(2)”, 그 말씀 (94년 12월호), p. 243.

86) J. D. Baumann, *An Intru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8), p. 289.

있는 한에서 자신의 회중들을 철저하게 알아야 하며, 자신의 회중들을 넓고 깊게 알되,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 정도로 깊이 알아야 한다.⁸⁷⁾

다섯째, 성경적이고 성공적인 적용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설교자들은 전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없는지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도 제시해 오지 않았다. 회중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방법을 말해주는 데는 극히 빈약했다. 설교를 했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⁸⁸⁾ 적용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크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현실감을 얻지 못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라야 사람들은 변화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의 적용부분이 막연하지 않고 좀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강해설교 준비과정의 예(例)

설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위의 실제 적용의 원리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실제 강해설교를 예시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강해설교의 연구와 실제 목회현장에서 강해설교를 통해 많은 후배사역자들에게 강해설교의 모범을 보여준 김서택목사의 저서 「강해설교의 기초」를 통해 한편의 강해설교를 살피고자 한다.

본문: 사사기 6장 1-13절

87) Philips Brooks, 「필립스 부룩스 설교론」 서문강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p. 180.

88) J. E. Adams, 「설교의 시급한 과제」 이길상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pp. 167-9.

a. 설교의 준비의 순서⁸⁹⁾

- (1) 본문 선택
- (2) 저자의 의도 파악
- (3) 본문에 대한 구상
- (4) 본문에 대한 주해
- (5) 본문에 대한 주해
- (6) 설교의 대지와 소지 및 핵심적인 논리의 구성
- (7) 설교의 서문 작성 및 설교작성
- (8) 설교의 마무리 및 완성

b. 본문의 문단 나누기⁹⁰⁾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의 내용을 일단 문단으로 나눈다.

- (1)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 부터 당한 고통(1-6절)
- (2)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함(7-10절)
- (3)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대화를 나눔(11-13절)

c. 저자의 의도 파악⁹¹⁾

본문에 나와 있는 저자의 의도를 몇 가지로 나누어 파악한다.

- (1)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고통 받은 것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본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89)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서울: 홍성사, 2001), pp. 149-164.

90) Ibid., pp. 149-164.

91) Ibid., pp. 149-164.

(2)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우선,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답지 않게 다른 부족들을 데리고 왔다. 3절,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사람.”

둘째, 그들은 추수 때 오지 않고 파종 때에 공격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의도로 보인다.

셋째, 저자는 그들을 메뚜기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다. 5절,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사실 이 당시 메뚜기 떼의 공격은 아주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미디안 족속들은 ‘인간 메뚜기’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메뚜기 재앙은 일회적으로 끝나지만 미디안 족속들의 괴롭힘은 7년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뚜기는 적어도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는데 미디안 족속들은 사람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안 족속들의 의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땅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3)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요즘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회개 기도에 해당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그냥 소리만 지른 것 같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과 비슷하다.

(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바로 군사작전을 개시하시지 않았다. 그 대신 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셨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름 없는 선지자’ 는 대단히 특별한 느낌을 준다. 본격적인 선지자의 시대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일종의 ‘진단’ 에 해당되는 셈이다. 도대체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며 왜 너희들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다.

(5) 선지자의 지적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도 관계있다. 선지자의 지적은 ‘정체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오래 살면서 이미 그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 넘기심으로써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다. 특히 그것은 우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6)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다. 즉 그것은 소명의 문제다. 그런데 그는 소명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인간적인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 그 역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때의 이적을 믿고 있었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저자의 의도는 여러 가지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들이 신앙문제와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현상적인 설명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달려있다. 저자는 미디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d. 본문에 대한 구상⁹²⁾

설교는 단순히 성경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천 년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흔한 일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다. 미디안의 공격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의 여러 나라에서 얼마든지 뉴스로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IMF관리 체제이후에 사업이 부도나거나 직장에서 퇴직당하는 바람에 생활의 근거를 잃은 많은 교인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

92) Ibid., pp. 149-164.

늘 본문을 통해 교인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의 어려움을 신앙의 눈으로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보자는 것이다.

e. 본문의 구조 파악⁹³⁾

(1) 미디안의 압제

1절 상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원인)

1절 하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원인)

2절 상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결과)

3절 상 파종한 때면(시기)

5절 메뚜기 떼 같이, 약대가 무수함이라(미디안 공격의 특징)

(2) 이스라엘 족속의 반응

6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3) 하나님의 반응1- 선지자의 방문

8절 상 한 선지자를 보내사(선지자를 보냄)

8, 9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애굽사람의 손(현재의 고통을 애굽과 연결)

9, 10절 그들을, 그 땅을,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출애굽과 가나안을 연결)

10절 하 내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결론)

(4) 하나님의 반응2- 기드온을 방문하심

11절 상 여호와와 사자가...(방문의 주체)

93) Ibid., pp. 149-164.

11절 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의외의 방문)

12절 큰 용사여(하나님의 부르심)

13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
나이까(기드온의 신앙)

f. 본문주해⁹⁴⁾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또’ 라는 말을 통하여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복적
으로 이루어진 ‘고질적인 문제’ 임을 알 수 있다. ‘여호와의 목전’ 이
라는 표현도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선지자의 의식 구조 속에
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고 계신 구별된 지역이 있
었던 것 같다. 물론 그곳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는 하
지만 이스라엘 경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일어나는 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는 것도 독특한 어법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고 ‘붙였다’ 고 표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상식적으로 곡식을 빼앗기 위해 공격을 한다면 추수후가 적절한데 미디안
족속들은 파종할 때 공격했다. 이것은 농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굶주림으로 인하여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나도록 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면 왜 이들은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몰아내지 않고

94) Ibid., pp. 149-164.

농사를 방해했을까?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생각되며 이차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약속하신 땅을 빼앗길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5절 메뚜기떼같이 들어오니

인간 메뚜기떼의 공격인 이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그들은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께 다 빼앗길 뿐 아니라 근본적인 약속, 즉 가나안 땅의 축복까지 위협 당하게 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6절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아마 제대로 된 회개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그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름대로 살아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안되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통곡의 시간이 사실 이스라엘의 악순환을 푸는 열쇠였다.

우리의 어려움은 참으면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다. 특히 오해에서 비롯된 대인 관계의 문제들은 참고 인내하면 해결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참을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기 몸살은 참으면 나을 수 있지만 몸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참으면 참을수록 병을 키우게 된다. 이런 것을 구조적인 문제 또는 악순환이라고 말한다.

8절 한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께서서는 양식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에 반응해 양식이나 군사를 보내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왜 그러셨을까?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다. 병원에 가면 아무리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의사는 반드시 진단을 한다.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치료를 한다 해도 결국에는 재발하고 재발했을 때는 그만큼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

9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애굽 사람의 손과

강해설교의 원리는 성경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지금 선지자가 사용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이다. 특히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기드온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출애굽은 신들의 전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 아니면서 신으로 숭배 받는 애굽의 열 가지 신들을 재앙으로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았다. 그런 생활을 자꾸 동경하던 유대 민족이 마침내 그들의 신까지 동경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경의 원인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는데 있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생활수준도 문화도 아니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바람에 정체성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11절 여호와와 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사람은 한 선지자였는데 기드온을 찾아간 분은 여호와와 사자인 것을 보아 그 중요성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여기서 기드온을 찾아

온 여호와와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제2위의 하나님 이시다.

준비되지 않은 기드온을 만나 그를 부르신 것이 모세를 부르신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구원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다.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뜻이 아니며,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시는 최대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너는 오직 사용될 뿐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사양하게 된다.

13절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드온은 출애굽의 이적을 믿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런 믿음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부르셨는가? 그의 가문이 유능하거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g. 핵심적인 논리의 구성⁹⁵⁾

강해설교는 논리적인 설교다. 따로따로 조각난 것 같은 본문을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이 강해설교의 핵심이다.

오늘 본문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문제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교회에 다니지만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IMF관리 체제이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많

95) Ibid., pp. 149-164.

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본문의 논리는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선지자의 진단이 나오고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지혜롭게 잘 연결하고 적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h. 서문의 작성⁹⁶⁾

서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설교의 실마리를 풀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고통에서 시작하는 것은 신세타령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선지자의 진단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병은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듯이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서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강해설교의 예(例)

본문: 창18:22~33

제목: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대한 일이 발생되면 이 문제를 놓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나 친구 혹은 믿을 만한 선배 등등...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을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개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친구의 위치로 끌어 올려서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96) Ibid., pp. 149-164.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 15:15)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종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 유럽과 한국에서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업계에 큰 파동이 있었는데, 이처럼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발생하면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가축은 도살해야 합니다. 그 지역 안에 건강한 가축이 있다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은 지상전에 앞서 공중전으로 사전에 적군지역을 초전 박살내고 거의 우세한 상황에서 지상군을 투입합니다. 이는 악한 권세를 공중전(중보기도)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한 힘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도 그의 중보기도를 살핌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성읍사람들은 곧 멸망당할 것이 분명한데 당연히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의인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라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소수의 의인으로 인해서 부지케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사람들과 인연이 있었는데, 그

것은 소돔이 과거에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게 사로잡혔을 때(14:11-12), 아브라함은 그들을 물리치고 소돔사람들을 구출했었습니다.(14:16).

이제 그는 그들을 위해 싸웠던 때와 똑같은 담대함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기 당당하게 항의합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옳지 않으십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항의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심판입니다. “분명히 그 도시 안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면 어찌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한테는 무슨 생각이 있는데?”

“의인 오십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벌주지 않겠다.”

이 대화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성품이 도저히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며 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해치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성읍이 회개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고 그나마 인간적이며 악을 싫어하고 자기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점점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시다는 것입니

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인간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보다 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셨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릴 대책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간구는 열명에 그쳤습니다.

왜 그는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대화하는 동안 결국 그가 발견한 사실은 소돔은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인 오십 명만 있으면 그 성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십 오명만 있었어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열명만 있었다라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운명이 바뀌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돔에는 의인 열명이 없었을지라도, 헤브론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어 멸망 가운데서라도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되고, 소돔에 가까운 성 소알이 보존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의인이 무슨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더라도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해야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의인 1명만 있어도 그가 의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만 한다면 그가 속한 가정을, 지역을, 나아가서 사회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지나치게 자기의 문제에만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이 세상을 회생시킬 계획을 제시하길 바라십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진리가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다면, 내속에 양심이 움직이며 갈등하고 있다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굳어지고 경직되어 죄

를 짓고 악한 생각을 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이는 신앙이 굳은 것이요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이나 가정의 문제를 보고 속으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활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중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의인 한명이 되어 도시 전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듯이,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출32:11-13)를 했듯이, 메대왕 다리오통치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기한(70년)이 다 찻는데도 해방의 조짐이 안보이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듯이(단9:3-19),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듯이(요17:1-26),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중보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도움과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 끈질기게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VI. 결론.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신교회⁹⁷⁾에서 가장 건전하게 추구해야 할 설교의 형태는 무엇인가 그것은 강해설교이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명제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먼저 “신학의 최후의 언어는 설교이다.”⁹⁸⁾, “설교는 개혁 주의적 이어야 한다.”, 개혁주의적 설교는 강해설교이다. “강해설교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다.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강해설교는 성경적 설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심지어 정성구 교수는 “성경적 설교로서의 최상의 방법이 강해설교라고 생각 한다”⁹⁹⁾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해설교를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고 주장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의 원리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었으며 이는 개혁주의자들이 지켜온 성경적 설교의 기본 틀이다. 그렇다면 「가장 개혁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설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이 강해적 설교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의 근거자료로서 성경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염매임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성경의 초자연적 영감과 성경적 계시의 특이성을 부인

97) W. S. Reid, "Reformed Churches," 김성봉, "21세기 개혁신교회 설교의 방향", (한국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 설립 5주년 기념 특강), 1997. p. 11. '개혁신교회'란 용어는 넓게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자면 루터파와 대비되는 교단들을 가리키는데, 즉 칼빈에 의해서 주장된 교리체제와 또는 정책을 따르며 여러 가지 개혁된 신앙고백을 하는 교단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특히 유럽 대륙에서 유래된 칼빈주의 교회들은 개혁신교회라 부르고, 영어 사용권에 속한 칼빈주의 교회들은 장로교회라 부르는데, 이 둘을 합하여 개혁신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98)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1), p. 13.

99) Ibid., p. 347.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성경만」을 설교의 원칙으로 삼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영원불멸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혜와 감사가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현 시대가 많은 정보와 첨단 과학문명의 이기를 유익하게 누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인류의 근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계획된 삶을 우리 인간은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씀사역자로 부름 받은 목회자는 특별히 개혁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개혁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재수 교수도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의 임무는 자기의 생각이나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¹⁰⁰⁾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강해 설교를 강조한 데니스 레인은 ‘강해자’ 즉 ‘설교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사람들의 눈을 열고 그 말씀을 매일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⁰¹⁾ 설교자로 사는 동안 오직 성경의 조명을 받으며 자신을 성경의 거울에 비춰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¹⁰²⁾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일 가운데 한국교회는 말씀에 갈급한 성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말씀의 부흥을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100) 고재수, 「교의신학의 이론과 실제」(서울: 디다케, 1992), p. 121.

101) 데니스 레인, 「강해설교」, 김영린 역, (서울: 두란노, 1995), p. 33-34.

102) 김성봉,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 (한국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 설립 5주년 기념 특강), 1997. p. 26.

VII.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고재수, 『교의신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디다케, 1992
-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한다』, 서울: 두란노, 1996.
-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 서울: 흥성사, 2001.
- 김승태, 『문화 사역에로의 초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4.
- 박희천, 『오늘의 설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부, 1980.
-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박종철, 『구속사적 성경해석』,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8.
-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0.
- 이순한, 『신약 원어 연구 해설』, 서울: 청암사, 1980.
- 장두만,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1990.
- 정근두, 『로이드 존스의 설교론』, 서울: 여수론, 1994.
-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 ,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8.
- ,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3.
- 정성욱, 『성경신학과 개혁신학』, 서울: 진리의 말씀사, 1994.
- 정장복, 『설교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주도홍, 『개혁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 한제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상, 서울: 진리의 깃발, 1995.
- 허순길,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2) 번역서적

- Adams J.E. 『설교연구』,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 『설교의 시급한 과제』 이길상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 A. P. Gibbs. 『설교자와 그의 설교』, 조정훈 역, 서울: 전도출판사,

1988.

Babb, O.J. *Prophetic Preaching*(n.y:ABINGDOD Press, 1953).

Baumann, J.D. 『현대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양서각, 1984.

Clyde Reid. 『*The Empty Pulpit*』,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C. 팀프. 드프릭. 『설교학 강의』, 고서희, 신득일, 한만수 공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Danis, J.V. 『능력있는 설교』, 이태웅, 송헌복 역, 서울:두란노서원, 1989.

D. M. Lloyd-Jones, 『목사와 설교』, 서문강역, 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데니스 레인, 『강해설교』, 김영련 역, 서울: 두란노, 1995.

John A.B. 『설교학개론』, 정성구 역, 서울:세종문화사, 1988.

존 레이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생명의 샘, 1992.

John T. McNeil. 『*The History & Character of Calvinism*』, (NY: Oxford Univ. Press, 1957.

존. 스타트. 『설교자 상』, 문창수 역, 서울: 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7.

F.B.Meyer. 『강해설교의 계획과 방법』, 서기산 역 서울:원간목회사, 1977.

Liefeld W.L. 『신약을 어떻게 강해할 것인가?』, 황창기 역, 서울:두란노, 1988.

Merrill F.Unger, *Principles of Expository Preaching*, 『강해설교 원리』 최남수 역, 서울:가브리엘출판사, 1985.

M. 엉거, 『강해설교의 기술』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1.

Stott, John R.W.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풍만출판사, 1985.

윌리엄 스쿠드릭. 『예배에 있어서의 설교』, 차호원 역, 서울: 소망사, 1985.

해돈 로빈슨.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6.

(3)외국 서적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Michigan:Eerdmans Publishing, 1999.

(4)정기간행물 과 논문

고재수.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 고려신학보16집, 1988.

김성봉.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 한국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 1997.

김영규. 『21세기를 대비한 개혁교회상』 미간논문.

안성호. 『바른예배 정립을 위한 개혁주의 설교의 역할』 고려신학대학원, 1998.

이병돈. 『강해설교에 있어서의 상황에 대한 텍스트의 적용』 월간 목회, 1989.8.

장시용.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본 설교』 고신대학신학대학원, 1998.

정성무. 『한국 개신교 설교의 나아갈 방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정성구. 『설교없이는 구원없다』 개혁신학과 설교연구 제1호, 서울:국제 신학연구소, 1989.

한제호. 『독일 최대 성경신학자 아돌프 슬라터 전기』 자연, 2002.

-----, 『히브리서에 제시된 우리의 설교 본문 선택 지침들과 그 이론에 근거한 설교 예문 3편』 교회와 문화 제8호, 서울:도서출판 하나,2002.

고려신학대학원 교회문제 연구소.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총회출판국, 1996.

(5) 기타 사전류

「신학사전」 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1.